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의 속뜻

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눅20:19-26)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의 속뜻

<sup>19</sup>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  
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  
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sup>20</sup>  
이에 그들이 옛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sup>21</sup>그들  
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  
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  
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  
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  
리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  
나이다 <sup>22</sup>우리가 가이사에게 세  
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  
지 않으니이까 하니 <sup>23</sup>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sup>24</sup>데  
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  
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sup>25</sup>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  
님께 바치라 하시니 <sup>26</sup>그들이 백  
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

자연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받  
는 그릇이고 영적인 것은 천적  
인 것을 받는 그릇이다, 천적인  
것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들어오며 그것을 유입이라  
고 한다. 천적인 것은 모든 신앙  
에 속한 선이며, 영적인 것은 진  
리이다. 진리가 신앙의 진리가  
되려면 그 속에 신앙의 선이라  
고 하는 인애의 선이 있어야 한  
다. 인애의 선 안에는 주님에게  
서 오는 생명 그 자체가 들어있  
기 때문이다. (천국의 비밀 880:2,  
이순철 역) ...the natural, the spi  
ritual, and the celestial. His nat  
ural never receives any life exc  
ept from the spiritual, and the s  
piritual never except from the c  
elestial, and the celestial from t  
he Lord alone, who is life itself.  
But in order that a still fuller i  
dea may be gained: the natural  
is the receptacle that receives t  
he spiritual, or is the vessel int  
o which the spiritual is poured;  
and the spiritual is the receptac  
le which receives, or is the ves

눅20:19-26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의 속뜻

*sel into which is poured, the celestial. Thus, through things celestial, life comes from the Lord. Such is the influx. The celestial is all the good of faith; in the spiritual man it is the good of charity. The spiritual is truth, which never becomes the truth of faith unless there is in it the good of faith, that is, the good of charity, in which there is life itself from the Lord... (AC.880:2)*

※ 아래 서울 새 교회 에피소드는 꼭 기억 되어져야 할 유익한 내용이라 그대로 인용합니다.

오늘 예배는 이한구 장로님 추모 예배를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장로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꼭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장로님을 생각하면 그리움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시지 않았 습니다. 사람을 주눅 들게 하시지도 않았고,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유머가 많아서 장로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웃음이 있었습니다. 이한구 장로님은 새 교회 설교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교해야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었지요. 공감은 하지만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마음대로 잘 안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로님께 미안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보통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만나면 바로 자신의 신앙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열심히 배울 뿐 아니라 삶으로도 적극적으로 실천합니다. 새 교회에 오신 분들이 보통 이런 분들이십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 호기심은 있지만 미온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를 반대하고, 심지어 파괴하려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진리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진리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진리를 지키려는 사람이고, 하나는 진리를 파괴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sup>19</sup>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 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의 속뜻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  
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 원래 ‘대제사장’은 복수가 아닌 단수여야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은 매우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은 지난 6월 16일 주일 설교, ‘성전에서 장사들을 내쫓으신 주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속뜻은 자아에서 비롯한 악을 뜻하고, 서기관은 자아에서 비롯한 거짓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자신의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아는 이기적이지만 진리는 이타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것이 정반대인 것이지요. 자아를 사랑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진리이신 주님을 해치려 했던 것은 그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은 누굴까요? 백성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진리를 공격하더라도 능히 진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스베덴보리 저, ‘천국과 지옥’ 중 26장, ‘천국 천사들의 능력’(228-336)에 나오는 글들 일부 인용입니다.

...그러나 영계에서의 천사들의 능력은 너무도 커서 그에 대해 내가 목격한 것을 모두 얘기한다면 믿기 어려울 것이다. 영계에서 신적 질서에 어긋나 제거해야 하는 어떤 장애물이든지 천사들은 단지 한 번의 의도함과 응시함으로 쫓아내거나 전복한다. 나는 악인들이 점령한 산들이 그렇게 내던져지고 파괴되는 것과, 때로는 지진이 난 듯 끝에서 끝까지 흔들리는 것을 보았으며, 암벽이 밑바닥까지 갈라져 그 위에 있던 악인들을 삼키는 것도 보았다. 또 나는 천사들이 수십만의 악한 영들을 흠어 지옥으로 내던져지는 것도 보았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악한 영들은 천사를 당할 수 없고, 술책과 교활함과 무리지음도 허사가 된다. 천사들은 그 모든

눅20:19-26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의 속뜻

것을 꿰뚫어 보고 즉시 쫓아버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바빌론의 멸망을 다룬 책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영계에서 천사들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 성서를 보면 천사들은 허락되었을 때는 자연계에서도 이런 힘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군대 전체를 쳐부수거나 전염병을 내려 칠만 명을 멸했다고 한 구절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천사들 스스로는 아무 능력이 없고, 그들의 모든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다. 또 그들이 이것을 인식할 때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 중 누군가 자기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되면 그 순간, 단 한 악령에게도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어떤 공로도 자기들에게 돌리지 않으며, 그들이 한 일에 대한 어떤 찬사와 영광도 싫어하고, 모든 찬사와 영광을 주께 돌린다...

...천국에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적 진리에 모든 능력이 있다. 천국에서 주님은 신적 선에

결합된 신적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천사들은 신적 진리를 받아들이는 정도만큼 능력이 있다...

//

백성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주님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체포할 수 없게 되자 계책을 세웁니다. 20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sup>20</sup>이에 그들이 옛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정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 역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진리보다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그러므로 진리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가와 진리의 허점을 캐고, 그렇게 해서 진리를 무력화시키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새 교회의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허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의 속뜻

점을 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정탐들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sup>21</sup>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 원문에는 face, 즉 얼굴로 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속뜻으로 얼굴은 사람의 내면을 뜻합니다. 얼굴을 통해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는 내적인 것만 중시하는 사이비 진리가 많은데, 주님의 진리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함께 아우르는 합리적 진리라는 칭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르치시는 진리는 천국의 삶과 세상의 삶 모두를 아우르는 조화로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 다음은 이순철 목사님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한 동안 교회 공동체의 어떤 마을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무엇보다 결혼의 순결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에서 동창생 여자아이를 만나도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도 자제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이 아파 병원에 가는 것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모두가 믿음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종교의 교리는 그렇게 외골수적인 편향이 있습니다. 정탐들은 그런 점을 의심했지만, 일단 주님을 칭찬합니다. ‘내가 들어보니 당신의 진리는 천국의 삶만 중시하고 세상의 삶은 소홀히 하는 그런 사이비는 아닙니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바로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22, 23절 말씀입니다.

<sup>22</sup>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sup>23</sup>예수께서 그 간계

눅20:19-26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의 속뜻  
를 아시고 이르시되

가이사, 즉 케사르(Caesar, 라틴)는 당시 로마 황제를 일컫는 호칭입니다. 헬라어 카이사르(Καῖσαρ)를 라틴어로 읽은 것입니다. 온 세상의 황제, 그러므로 속뜻으로 가이사는 세상의 진리를 뜻합니다. 말씀에서 왕은 진리를 뜻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좇지 않고, 세상 진리를 좇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신앙인이 병이 들었을 때, 분명 신앙인이면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대신 거의 자동반사적으로 병원 의사를 찾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라고 묻는 것은, 신앙인들이 신앙인이면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대신 거의 무의식적, 반사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진리를 좇는 것이 옳냐, 옳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만약 옳다고 하면, 그들은 주님을 세속적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반대로 옳지 않다고 하면, 세상의 삶과는 동떨어진 공허한 진리를 가르친다 비난하겠지요. 그들의 말

을 듣고 주님께서 그들의 간계를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입장으로는 어떻게 대답해도 책잡힐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sup>24</sup>테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sup>25</sup>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가이사의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것도 필요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세상 물질이나 학문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선과 진리입니다. 새 교회 가르침, ‘천국의 비밀’ 880번 글 2번 항에서는 ‘자연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각자가 소유하는 세상의

‘가이사 의 것, 하나님의 것’의 속뜻

것 안에 하나님의 것을 담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하나님의 것을 담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일을 할 때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나보다는 주님과 이웃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이사 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일입니다.

<sup>26</sup>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정탐꾼들은 더는 주님을 책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하나인 것처럼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것을 분리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여기서 잠깐, 여기 주님의 말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

이다’ 관련, 흥미로운 글이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류모세 저, ‘열린다 성경, 생활 풍습 이야기 (하)’ 인용입니다.

...이들이 가져온 올무는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세금 납부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마22:17)

사실 이 질문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올무였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 화폐는 종교성이 강한 유대인들에게 강한 거부감을 주었는데, 이로 인해 주후 6년, 열심당의 주도 아래 로마 화폐 사용에 저항하는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로마는 이를 잔인하게 진압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원한을 샀으므로 이 같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 귀추가 주목되는 순간이었다. 예스든 노든 어떤 대답으로도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바

눅20:19-26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의 속뜻

바리새인들의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신다.

<sup>18</sup>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sup>19</sup>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마 22:18, 19)

예수님은 이미 질문 속에 숨겨진 악한 의도를 간파하시고는 오히려 그들에게 셋돈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셋돈’은 로마 제국에 세금으로 바치는 데나리온이었는데, 여기에는 당시의 로마 황제이며, 신으로 추앙받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에 내는 납세의 정당성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울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쳐 놓은 울무에 그들이 걸리고 말았다.

당시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와 관련된 영적인 문제와 압제자 로마에 대한 정치적인 적대감 때문에 데나리온을 소유하지 않았다. 심지어 데나리온에서 황제의 얼굴이 있는 쪽을 망치로 때리는 의식을 갖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할 때, 바리새인들이 보인 데나리온은 그들이 이미 종교적인 유대인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음을 확인해 준 셈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내놓은 에스나노의 대답에만 정신이 팔려서 정작 예수님이 ‘셋돈을 달라’시며 쳐 놓은 그물에는 아무 생각 없이 걸려들어, 갖고 있던 데나리온을 내보였던 것이다. 그 순간 아차 싶었겠지만,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

누가복음 16장에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 빚을 탕감해 주는 청지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으로 이웃의 환심을 사는 청지기가 결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그를 지혜롭다고 칭찬을 합니다. 청지기의 주인은 왜 그를 칭찬했을까요? 주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인의 것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의 속뜻

으로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는 청지기는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신앙인들의 좋은 본보기라 하겠습니까.

이한구 장로님은 평생 노력해 큰 재산을 모았지만, 당신 자신에게 쓰는 데는 정작 엄격했다고 들었습니다.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마지막에는 한국 새 교회를 위해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짓기 시작했을 때, 바로 앞의 녹번초등학교 학부형들이 아무 이유 없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야 그들이 주변에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임을 알았습니다.

※ ‘아무 이유 없이’라고 하셨지만, 틀림없이 우리 동네에 이단이 들어오면 안 된다 하여 ‘결사반대’ 차원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나름 개신교 십자가 복음 교리를 수호하느라 그러셨겠지만, 좀 더 넓으신 주님의 마음, 개신교와 기독교뿐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장로님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 장로님과 우리들이 세상의 부조

리와 싸우는 모습은 주님을 지키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싸우는 사도들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로님은 누구보다 훌륭한 주님의 청지기였습니다. 장로님이 천국의 천사들로부터 말씀의 진리를 어렵지 않게 배우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천국에 계신 이한구 장로님과 그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주님의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는 서울 새 교회, 그리고 한결같은 교회의 모든 성도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 25:21) 아멘

2022-06-12(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2024-07-07(D1)

한결같은 교회 변일국 목사